

노동 패러다임 일대 전환...한국 고용경제 선진 모델로

노사상생 협약안 무순 내용 담겼다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현대자동차 합작 광주공장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와 현대차가 마련한 최종 협약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반발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노조의 요구안이 얼마만큼 협약 안에 담겼는지 여부도 중요해졌다. 광주시는 합작법인 설립 이전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가 투자자 모집, 공장 설립 계획 및 운영 방안 수립 등에 나설 예정이다.

2021년 하반기 빛그린산단 내 공장 가동에 들어가 이틀 안에 수익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대차의 자동차 공장 경영 노하우를 근간으로 지역노동계, 광주시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우선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1일 일부 공개된 투자협약안에 따르면 광주시와 현대차는 1, 2대 주주로서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을 목표로 지역 사회 및 공공기관, 산업계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1000cc 미만의 경 SUV 차종(가솔린)을 개발하고 신설법인에 생산을 위탁하며, 공장 건설·운영·생산·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과 판매를 맡게 된다. 완성차 생산 공장은 빛그린산단 내의 약 19만평 부지에 2021년 하반기까지 가동을 목표로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규모로 건설한다.

또 현대차는 신설법인에 투자자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신규 차종의 생산을 위탁판매하며, 신설법인 공장건설 및 생산 운영,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생산·경영은 신설법인이 현대차는 기술지원·위탁판매 광주시 노사정협의체 구성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 범위 내에서 보조금과 세제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또 '적정임금 부속협정서'를 통해 전체 근로자 평균초임을 3500만원(주 44시간 근무기준)으로 정한 뒤 외부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맡겨 선진임금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협의회가 객관적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신설법인은 이를 준수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실 투자규모의 10%에 상응하는 보조금,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하기로 했고, 보조금은 신설법인 공장가동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노사민정협의회가 결의한 상생발전협정서에는 ▲적정임금 수준 유지 및 선진임금체계 도입 ▲적정노동시간 구현 및 유연한 인력운영 ▲협력시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노·사간 협력을 통한 소통·투명 경영 실현 ▲지역공동 협조체계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그동안 노동계의 반발을 샀던 임금협상 유예 조항과 관련, 누적 생산 35만대를 달성할 때까지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중재조정위원회가 노사문제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하기로 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대신, 차임금 조기상환 및 누적결손금 해소 이후 가시적 경영 성과를 보이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상 현대차 합작 공장이 35만대 이상 생산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는 임금협상 등은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호봉제 폐지, 직능직무제 및 탄력근무제 도입 등 노동개혁에 해당하는 조항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정 임금을 적용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기존 노동계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노조원들은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권을 무시하는 저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며, 자

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은 물론 자동차 산업 전반에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현대자동차 노조와 기아자동차 노조는 이날 하루 확대 간부 파업에 들어갔고,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규탄해 2월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 협약조항에는 임단협 5년 유예 조항이 유지돼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파괴했다"며 "전면적인 법률 검토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노심초사' 문 대통령 세번째만에 성사된 협약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의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말에는 그동안의 애달픈 심정이 녹아 있었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 (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바라며 노심초사했던 문 대통령의 지난해 6월 19일과 12월 6일 투자협약 조인식이 2차례나 무산되자 크게 안타까워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식 행사가 연이어 취소된 것은 그 유례가 없었지만, 그는 협상 당사자들의 힘을 북돋우며, 결실이 맺어지길 바랐다. 지난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하며, 희망을 선사했다.

지난 31일 협약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드디어 광주형 일자리가 실현하게 돼 사회적 합의를 간절히 기다려온 모든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귀한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수고

를 해주신 현대자동차, 직접 협상단장을 맡아 이끌어낸 이용섭 광주시장,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협상 교착상태에서 물꼬를 터준 지역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대학생들, 학부모, 시민단체, 중소기업들이 범시민 결의대회를 갖고 서명운동까지 하며 힘을 보탤"고 덧붙였다.

이런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문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는 "기업 성장은 고용으로 그 열매를 나눠야 하며, 국민들은 좋은 일자리를 통해 삶의 의미를 가족과 나누고, 사회 안전망 속에서 미래를 꿈꿔야 한다"며 "공존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성공시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도 마음껏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며, 앞으로 할 일이 많다"며 "많은 국민과 지자체가 기대와 희망을 갖고 광주를 주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주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도 마음껏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며, 앞으로 할 일이 많다"며 "많은 국민과 지자체가 기대와 희망을 갖고 광주를 주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성사, 1등 공신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용섭 시장

정태호 수석·이병훈 부시장 측면 지원으로 본 궤도 올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 (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은 광주시, 현대자동차, 정부·정치권, 지역노동계 등 노사민정의 '굳건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쇠퇴와 일자리 창출 난방, 고임금 정규직 중심의 노동계 경직성, 대기업의 국내 투자 지연 등의 여건 속에 우리나라 경제 엔진이 급속도로 식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통합과 역할의 분배를 통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야말로 그 대안이라는 인식이

확고했다는 의미다.

1등 공신은 사그라질 처지였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끝까지 광주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를 민선 7기의 핵심과제에 선정하고 끝까지 밀어붙여 마침내 성과를 낸 이용섭 광주시장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6월 19일, 12월 6일 등 두 차례나 투자협약 조인식이 무산됐음에도 꺾여가는 불씨를 되살리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인식을 전국민에게 심어줬다. 이 시점에서 민선 7기에 시작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이어받아 직접 현대차와 지역노동계를 오가며 이견을 조율했다. 도시철도 2

호선에 이어 광주형 일자리 사업까지 기존 현안을 해결하면서 이 시장의 광주시장 역사의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을 뒷받침한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 시장을 보좌한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의 노력도 간과할 수 없다. 이들은 투자자인 현대차, 이해당사자인 지역노동계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는데 크게 기여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처음 추진해 4년간 공을 들인 윤종해 전 광주시장과 최초 설계자이자 막판에 사회연대일자리 특별보좌관(2급 상당)을 맡아 지역노동계를 설득한 박병규 특보도 공신록에 이름을 올렸다. 민선 6기부터 7기에 이르기까지 현대차

와의 협상에 참여한 이상배 부국 부구청장, 전은옥 전 자동차산업과장(현재 외교부 과장), 이를 이어받아 실무를 맡은 손경중 전라산업국장, 박민준 일자리경제실장 등도 목욕터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다.

노동계 대표로 노사민정 협상에 나선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장, 이기근 기아차 전 지회장도 대타협에 숨은 조력자들이다. 울산 현대차 노조, 광주 기아차 노조,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었지만, 윤 의장은 "시민들의 바람이 고동받는 지역 청년들을 위한 결정"이라며 끝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가까운 무안에서 출발해요~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주~우~욱~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여행 깊어 즐거움 동반자!!!
Djm 조이투어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무안 ↔ 기타큐슈 온천패키지로 올 겨울 따뜻하게 ♥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TW티웨이 항공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출발

오후출발(화,금,토) 무안(20:20) → 기타큐슈(21:30) / 기타큐슈(23:00) → 무안(00:15)

- ◆ 기타큐슈, 벳부, 유후인 2박4일 [정통] 539,000원~ / [풍격] 609,000원
- ◆ 기타큐슈, 벳부, 유후인 3박5일 [정통] 709,000원~ / [풍격] 839,000원

무안 ↔ 오키나와 *올겨울은 따뜻한 남쪽으로*

12월 22일 ~ 2월 23일 매주 화,목,토 출발

- ◆ 화/목요일 출발 2박 3일 999,000원~
- ◆ 토요일 출발 3박 4일 1,249,000원~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매주 월, 목(3박4일) / 수, 금(2박3일)]

[실속(세미더블)] 오사카, 나라, 교토 899,000원~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3박4일 999,000원~

무안 - 기타큐슈 겨울 온천여행

패키지 539,000원

문의 ☎ 1522-1901

무안 ↔ 다낭 직항전세기 [매주 화(3박4일) / 금(3박5일)]

화 출발 무안(08:40) → 다낭(11:15)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50) → 무안(07:40)

VN 베트남 국영항공(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내담요, 배개, 비디오 상영

[실속] 다낭, 후에, 호이안 4일 899,000원~ / 5일 949,000원~

[노티,노음선] 다낭, 후에, 호이안 4일 1,099,000원~ / 5일 1,149,000원~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출발

- ◆ [노티,노음선] 스펀, 단수이, 야류, 지우펀 699,000원~
- ◆ [고풍격] 화련, 태로각, 지우펀, 야류 699,000원~

무안 ↔ 나트랑 2/2일 부터 출발

[휴양+노쇼핑] 나트랑 3박 5일 890,000원~

[관광+휴양] 나트랑, 달랏 3박 5일 1,050,000원~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실속] 729,000원~ ◆ [풍격] 949,000원~

무안 ↔ 코타키나발루(제주항공)

목요일 출발(3박5일) / 일요일 출발(4박6일)

[호핑팩] 499,000원~ / [풍격팩] 699,000원~

무안 ↔ 세부(제주항공)

월요일 출발(2박4일) / 화,수,금,토 출발(3박5일)

[세미팩] 429,000원~ / [풍격팩] 699,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등다2003-1호

◆ 공동조건 : 여행객비 1인 기준, 여행보증금 가입(여행상품 :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 및 부부 이통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거요금 : 항공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상품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항공사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항공료, 기내식, 기내비행료, 선박료, 라우터, 라우터, 라우터, 라우터)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